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0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8일 (음력 10월 21일) 금요일

## 광주·전남 지역 정가 선거구 획정 '폭풍 전야'

6·1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정가 선거구 획정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도 감돌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광주·전남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편차를 4대 1로 정해 상한선 12만380명, 하한선 3만896명이다. 상한선은 넘기면 쪼개고 밑돌면 통합하는 방식이다.

광주에서는 동구, 전남에서는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 등 6개 군이 대상에 올라 있다. 최악의 경우 최대 7명이 줄어들 수 있다.

광주는 동구에서 시의원 1명을 줄이는 대신 상한을 넘긴 광산구에서 1명을 늘려

### 광주 동구 "광역의원 축소불합리...있을 수 없는 일"

###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 최대 6곳 '축소'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고 전남은 도의원 6명을 줄여 정수를 52명에서 46명으로 6명 줄이는 방안과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순천에 한 지리를 늘리되, 함평에서 1명을 줄여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위원장과 광주시의회 임택(동구), 조세철(동구2) 의원

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동구 시의원 1명을 축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는 데도 역시 통합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구1 선거구는 4만1612명, 동구2 선거구는 5만4176명으로 두 곳 모두 하한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한선에 임박한 북구 선거구(3만2938명)보다도 훨씬 많다.

정계특위는 대신, 인구 상한선(12만380명)을 갖 넘긴 광산구3 선거구(12만7442명)를 쪼개 광산에 시의원 1명을 더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이 역시 인구수가 더 많은 북구7 선거구(13만440명)는 그대로 두겠다는 취지여서 합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계특위안 대로라면 5개구별 시의원수는 동구는 1명으로 줄어 1구정장 1시의원 이 불가피하고, 서구는 4명, 북구는 6명, 광산구는 5명으로 늘게 돼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게 된다.

축소 대상 지역에서는 특히 "단순한 의원 수 감소가 아니라 교부세 배분액 감소와 예산 확보에 있어 정치적 합의의 약화로 이어져, 공국연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반발했다.

시·군·구 기초의원은 인구 대 동수 비율을 현재 30 대 70 구조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양대 쟁점이다.

현행대로 인구 30%, 동수 70%를 적용할 경우 광주 북구 아 선거구(전곡동, 양산동)의 경우 1인당 유권자수가 4만명을 넘어서 법적하용 인구기준인 '4대 1'(3만8064명)을 넘게 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역성과 표 등가성을 담보하고,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선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광주만 살펴 보면 전체 25개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고, 3인 선거구는 9개, 2인 선거구는 16곳으로 2인 선거구가 전체 64%를 차지한다. 사실상 지역 1, 2당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지역 정가의 독점화를 막고 투표가치 등가성 원칙 등을 감안하면 3~4인 선거구제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민심 왜곡을 막기 위한 시민공정 회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춘성 기자



### 느긋한 여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8일 "한국당이 보수 혁신과 대통합, 신보수 재건의 중심이 돼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보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홍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 관운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데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신보수의 새로운 터전을 세우고 보수우파의 건강한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대표는 한국당과 보수우파의 현실에 대해 "부끄럽다"고 자평하면서 "보수우파가 과오를 저질러 반성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 사진=뉴시스



광주시청 앞 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윤창현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시청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케를송을 부르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 소나무 LED장식, 소원의 터널은 내년 1월 10일까지 매일 가동될 예정이다.



우리가 보수 재건의 중심 돼야...



그건 보수 폐망의 지름길이야



자멸하겠다는데 그저 바라만 볼뿐이지

###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주의 권력' 출판기념회

오늘 오후 7시 DJ센터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8일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저서 '광주의 권력' (도서출판 단비P&B) 출판 기념회를 연다.

민 구청장은 "1987년 이후 한 세대가 경과하고 나서야 찾아온 더 좋은 나라를 만들 기회에서 광주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지역과 나라에 좋을지를 정리했

다"고 이번 책을 소개했다. 민 구청장은 촛불혁명-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치분권 개헌-2018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과정을 '좋은 기회'로 거론했다.

이 책의 부제는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주의 정원'이다. '민주주의 정원' (The Gardens of Democracy)은 에릭 리우 등이 쓴 책의 제목으로 '광주의 권력'의 논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민 구청장은 책 프롤로그에서 "광주가

'민주주의의 성지'를 밀거름 삼지 않고 '잘 사는 도시'로만 접근하면 개발시대 성장 전략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정의로움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중요성을 성취하는 도시가 민주주의 정원 '광주'이다"고 밝혔다.

'광주의 권력'은 제1부 '시민과 시민권', 제2부 '광주, 그러나', 제3부 '자치의 힘', 제4부 '정치, 그리고' 등 총 4부 16장으로 이뤄졌다. 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민 구청장의



한편, '광주의 권력'은 8일부터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다.

신간 출판을 축하한다.

'광주의 권력'은 2012년 '자치가 진보다', 2015년 '내일의 권력'에 이어 민 구청장이 재임 중 세 번째 집필한 책이다.

임형택 기자

##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에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